



채팅하고 결정하기

무함마드는 누구인가?

당신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korea.chatanddecide.com



무함마드는 누구인가? 당신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그는 서기 570년에 태어나 63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서적, 필사본, 기록 문서, 그리고 실제로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의 전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들이 존재하며, 이 자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어 왔고, 무슬림이든 비 무슬림이든 그 내용을 조작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함마드(그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전파했는가? 왜 그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가? 반면 왜 일부는 그를 무시하는가? 그는 선교에 인생을 바쳤는가? 그는 신성한 인물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언자인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신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다음은 수천 명이 증언한 사실이며, 무함마드와 동시대를 살며 그를 직접 알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 그는 메카의 가장 오래된 부족 중 하나에 속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 그의 이름 '무함마드'는 '찬양하다'는 뜻의 어근 '하마드(حمد)'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이름은 밤낮으로 전 세계에서 찬양받고 있습니다.
- 그는 부족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숭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그분과 같은 존재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존중하며, 장난스럽게 사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 거짓된 숭배와 그에 따르는 타락을 경멸했습니다.
-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전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일신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 간음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금지시켰습니다.
- 이자를 금지했으며, 예수(이사) 시대처럼 비난했습니다.
- 도박과 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술은 당시 풍습이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 중상모략과 소문을 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자주 금식했습니다.
-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순결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정하며 존경했습니다.



-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예수의 기적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 예수는 살해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올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 종말의 날에 예수가 다시 나타나 신자들을 인도하고 그릇된 자들을 물리칠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 그는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명령했고, 과부, 고아, 나그네의 보호자였습니다.
- 가족의 유대감을 중요시하고, 화해를 장려했습니다.
- 혼인 관계를 통해 남녀의 결합을 인정했고, 간음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 여성의 권리(지참금, 상속, 생활비 등)를 강력히 보호했습니다.
- 그의 성실함과 겸손함, 인격은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민(성실한 자)'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와 아이샤의 결혼은 합법적인 것이었고,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관계였습니다. 아이샤는 많은 예언자의 말씀을 전한 전승자입니다.

● 살인은 명백한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며, 무고한 자를 죽이는 일은 단호히 금지되었습니다.

● 그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대량 학살을 한 적이 없으며, 그들이 조약을 어겼을 때조차 최종적으로는 용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던 시대에 노예 해방을 명령하고, 자신도 많은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하인 자이드를 양자로 삼았고, 최초의 무아진(기도 인도자) 빌랄도 해방시켰습니다.



● 적에게 습격당했을 때도 보복을 명령하지 않았으며, 메카 정복 당시에는 적들을 용서했습니다.

● 이슬람 초기 13년 동안은 전투가 금지되었으며,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의와 질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사회 기반시설의 파괴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타이프에서 모욕과 폭력을 당했을 때도, 그는 기도하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기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대로 태어난다. 이후 부모가 그를 유대인, 기독교인, 불 worship자 등으로 만든다.” 즉,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본성(피트라)을 지니고 태어나며, 환경과 교육에 따라 그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그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